

준비-대응-구호 절차따라야

'긴급재난구호활동 지침서'로 본 재난재해 대비 요령



해마다 여름이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강원도에서만 1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은 약 17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불교계에서도 자원봉사 등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10년간 재난재해 구호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침서 <긴급재난구호활동지침>을 펴내고 전국 각 사찰과 신행단체에 배포하고 있다. 긴급상황 발생 시 각 사찰들이 종단의 재해대책본부와 연계해 올바른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앙 긴급재난구호 대책위원회

국내의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 조계종은 총무원 부·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재난피해지역 관할 교구본사 주지를 위원으로 참여케 해 중앙 긴급재난구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대비' 단계에서는 폭풍·호우·대설주의보를 살피고, 기상경보가 발표되는 '준비단계'에서는 피해 상황과 정보를 수집한 후 긴급재난구호봉사대를 결성한다. '대응단계'에서는 재난구호본부를 가동하고 선발대를 파견해 현장 상황을 파악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구호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언론과 홈페이지, 본·말사 및 교계 단체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선다. '구호단계'에서는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봉사자를 현장에 투입한 후 재난구호 의연금과 물품을 전달한다.

▷피해지역 교구본사의 역할

피해지역의 교구본사는 긴급재난구호 대책본부를 구축하고, 피해상황을 파악해 중앙 대책본부에 지원을 요청한다.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숙박, 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에서 전달되는 물품의 전달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구호에 필요한 인력, 장비, 중장비 투입 규모를 가능하고 통신망을 구축해 원활한 구호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한다. 피해 상황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도 해 본다.

▷사찰 및 신행단체 역할

일반 사찰과 신행단체는 중앙 긴급재난구호 대책위원회의 지침을 확인한 후 구호활동에 나선다. 신도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조계종복지재단, 긴급재난구호활동 지침서 발간 배포 단계별 주의사항·봉사자 투입 시기 등 일목요연하게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구본사와 사찰, 신행단체들의 신속한 대응활동이 필요하다. 구호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사진은 수해로 훼손된 주택을 복구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봉사자들(왼쪽)과 봉사활동 업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현대불교 자료사진.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모집했을 경우 중앙 대책본부에 전달한다. 물과 휴지, 세제, 버너, 부탄가스, 의류, 식품 등 응급지원물품을 파악해 중앙 대책본부에 요청한다. 재난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는 생수와 쌀, 이불, 라면, 버너 등이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실제

자원봉사자를 파견할 경우 현장에 대한 이해와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현장으로 나갈 경우 체계적인 봉사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호활동 자원봉사를 원하는 봉사자들은 상 황발생 후 5일 이내에 봉사신청을 하면 현장 가 있는 물품, 우유 등 유통기한이 짧은 물품, 냉장·냉동식품 등은 삼가도록 한다. 보일러나 에어컨 등 설치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한 물품도 적당하지 않다.

및 물품 점수를 할 수도 있다. 봉사활동의 내용도 근로봉사구호물품 정리 및 배분, 급식, 청소, 세탁 등)과 기능봉사(집수리, 도배 등) 의료봉사(의료상담, 무료진료) 전문봉사(인명구조, 통신, 전기, 중장비 지원) 등으로 다양하다.

자원봉사자들은 활동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지침을 전달받고, 안전대책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차량 및 숙식에 대한 정보와 상해보험가입에 관한 설명을 들도록 한다. 자원봉사자는 독립적인 행동을 금하고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활동한다. 장비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본인에게 전달된 장비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 몸에 이상을 느낄 시에는 즉각 활동을 중단하고 상황실로 연락한다. 활동이 끝나면 활동 사항과 개선점, 반성할 점 등을 기록으로 남겨 이후의 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재난 발생 시기가 경과함에 따라 펼쳐야 할 봉사활동 내용이 달라진다. 재난 발생 1~2주에는 인명구조와 주택 내 토사제거, 가구 및 집기세척, 급식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3주에는 산사태로 인한 붕괴지역 복구와 주택정비, 4주에는 상가 집기정리와 농산물 건조, 도배·보일러 설치 등의 봉사 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 시기별 필요 물품도 달라진다. 피해발생 첫째 주에 이 재민들에게는 식료품과 이불 등 응급지원 물품이, 봉사인력에게는 장화·장갑·세제 등의 장비와 도시락, 음료수가 필수적이다. 2주부터는 컨테이너하우스와 말뚝, 가전제품, 의료와 구호에 필요한 중장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02)723-5101

여수경 기자 snoopy@buddhapia.com



45. 차(茶) 운동

60년대 이후 실시된 경제발전 계획으로 도시와 농촌이라는 새로운 사회구조가 형성됐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혼란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생활방식은 혼재되어 전통문화의 부재를 낳았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서양문화의 상징인 커피를 마시는 것이 지식인과 상류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전통 녹차를 마시는 풍속은 더욱더 쇠퇴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화와 함께 전통문화 부흥정책을 펼친다. 1978년에 문예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국민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제교류를 통해 문화 한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제5차 경제 개발 5개년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차인들은 단체를 결성한다. 사회 곳곳에서 차에 대한 강연과 다례(茶禮)시연을 하는 등 80년대 초 차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다. 차 관련 전문 잡지를 발행하여 차의 역사, 효능, 차 음식, 다서 등의 내용을 다루는 차 문화 보급을 위하여 차 문화 운동을 전개한다. 학계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차 생활 예절 보급을 위한 책자를 발간하고 국내외 차 문화 교류를 시도한다.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차를 권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개발 14가지 품목 중에 녹차가 선정되는 등 음다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된다.

정부는 차가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순화하고 동작을 순하게 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보급 구제화 80년대 녹차 산업화 시작되며 홍보 활발

수정 계획안인 문화정책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회복 정책으로 전통 다도(茶道)의 종합적인 보급시책이 구체화된다.



는 힘이 있어 국민들의 정신 순화운동에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정신과 행동의 순화는 사회질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차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공보부는 다차와 다구전문점(80년대, 인사동)도 보급시책으로 차 문화유산의 중요성, 차와 국민건강, 차와 정신문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잡지 발간에 의뢰하여 차 관계 자료를 정비한다. 차산지와 재배지 조사, 풍호인별·계층별·지역별로 다도의 특징을 조사한다. 차 관계 전문잡지 발간을 독려하고 신문과 방송에 의한 홍보, 공공기관, 일반 직장에서의 다례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초·중·고에서는 차 우리기와 마시기, 예절 등 다도 교육을 실시한다. 고궁, 호텔 등에 다실을 마련하여 외국인 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공부에서는 차 보급 확대를 위해 다기(茶器)를 대량생산하여 가격을 낮추게 한다. 농수산부에서는 차 재배 농가를 지원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며, 제다(製茶) 기능 공을 양성하기도 한다.

1980년대부터 정부의 녹차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기업들은 자체 다원을 조성해 유통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무료 시음회, 다례교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매주 차 소식지를 발행해 사원들에게 녹차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도 한다. 당시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녹차의 맛은 송농 같기도 하고, 뉘은맛이 나고 때로는 풀냄새가 나기도 한다. 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차를 마셨고, 차 맛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 이창숙(동아사이언스문화연구소 연구원)

사ाम등록 및 행자모집

- ◆ 각 사아 등록을 받습니다. (서류절차 간단)
- ◆ 행자, 동자(에비스님)모집 합니다.

산세 수려한 청정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여 행자교육을 받고 스님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이 곳 고원사에서 건강하고 불심 가득한 행자 및 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행자 및 동자 자격기준

- ◆ 나이: 남자 55세 이하, 여자 50세 이하
- ◆ 학력: 고졸이상
- ◆ 나이: 동자 5세이상 12세이하
- ◆ 6개월 교육후 수계(에비스님)
- ◆ 문의: 총무실장 010-4802-5288 / 010-2039-5288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
 참선기도 도량 고원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전화 054)383-5005, 054)382-3397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경북 구미시 사곡동 670-1번지
 전화 054)464-4725 / 팩스 054)464-4735

다생업장 단박에 닦아내는 수행 金剛經 금강경

— 一休스님 강의

- 9월개강 오전반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 오후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주 제 부처님이 보시는 현실 삶의 금강경 / 현실 삶에서 보는 부처님의 금강경

전통강원 학인모집

- 초발심자정문·한문반
- ◆ 학기: 2007년 9월 - 2007년 12월
- ◆ 정원: 15명 ◆ 강의: 금요일 오후 2시
- 치문경훈반
- ◆ 학기: 2008년 3월 - 2009년 2월
- ◆ 정원: 15명 ◆ 강의: 수요일 오후 2시

* 재가학인 약간명 수강 가능함

반야사 경산강원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84-79 우암빌딩 3층
 TEL 02)762-0039

조계종 금강불교 입종안내

- ◆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 (총무원비지, 요청시 우편발송)
 - 주민등록등본 2통
 - 승적서류: 타종단 승려증 사본 2통
 - 사찰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2통
 - 여권용 사진 5매
 - 사찰전경 사진 (내, 외부) 각 1장
- ◆ 입종하시는데는 분개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을 드립니다
- ◆ 예비승 모집
 - 자격: 신체 건강하고 만40세 미만 고졸이상
- ◆ 문의처
 - 휴대폰 010-9244-3358
 - 총무원 055-649-5959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 없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중앙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일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할,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 296-7806